

# 열정과 도전으로 글로벌 합금철 시장의 새로운 리더로 발돋움합니다.

국내 유일의 고순도 페로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는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는 SIMPAC그룹의 계열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는 원가경쟁력 개선을 통한 수익성 확보, 조업기술 개선을 통한 고순도 페로실리콘 제품 생산으로 경쟁력을 향상하고 있으며, 오늘의 성과를 넘어서 더 높은 시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열정과 도전으로 글로벌 합금철 시장의 새로운 리더로 발돋움합니다.

# FeSi



최고를 향한  
SIMPAC의 여정



# SIMPAC story

2019 AUTUMN

VOL  
48

SIMPAC STORY 2019 AUTUMN VOL.48





# FeSi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국내 유일의 고순도 페로실리콘을 생산합니다.**



국내 유일의 고순도 페로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는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는 SIMPAC그룹의 계열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는 원가경쟁력 개선을 통한 수익성 확보, 조업기술 개선을 통한 고순도 페로실리콘 제품 생산으로 경쟁력을 향상하고 있으며, 오늘의 성과를 넘어서 더 높은 시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열정과 도전으로 글로벌 합금철 시장의 새로운 리더로 발돋움합니다.



최고를 향한  
**SIMPAC의 여정**



**SIMPAC**  
**story**

2019 AUTUMN

**VOL**  
**48**





열정과 도전으로 글로벌 합금철 시장의 새로운 리더로 발돋움합니다.



국내 유일의 고순도 페로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는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는 SIMPAC그룹의 계열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는 원가경쟁력 개선을 통한 수익성 확보, 작업기술 개선을 통한 고순도 페로실리콘 제품 생산으로 경쟁력을 향상하고 있으며, 오늘의 성과를 넘어서 더 높은 시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열정과 도전으로 글로벌 합금철 시장의 새로운 리더로 발돋움합니다.

SIMPAC STORY 2019 AUTUMN VOL.48



최고를 향한 SIMPAC의 여정

SIMPAC story

2019 AUTUMN

VOL 48

# SIMPAC story

SIMPAC STORY 2019년 AUTUMN

통권 48호 발행인 최진식 발행일 2019년 12월 20일 발행처 SIMPAC홀딩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13층 기획 및 디자인 큐더스다임 02-6011-0200

사보 담당자 (주)SIMPAC홀딩스 이도영 사원 02-3780-4923 dylee@simpac.co.kr | 김유림 사원 032-590-2041 yurkim@simpac.co.kr

(주)SIMPAC 프레스BU 김다희 사원 032-510-0040 daheekim@simpac.co.kr (주)SIMPAC인더스트리 민혜림 사원 032-590-8812 hrmin@simpac.co.kr

(주)SIMPAC 메탈BU 선광규 과장 054-271-8724 kgsun@simpac.co.kr | 이준기 과장 041-360-0122 jklee@simpac.co.kr

(주)리신택비즈 김영철 팀장 061-797-2012 yckim@simpac.co.kr



## FACT & STORY

04

#01 INTRO

Best & First

06

#02 INTERVIEW

남다른 성과로  
꿈에 다가서다

10

#03 INFO

SIMPAC은  
대한민국 최고를 넘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비상합니다.



## INSIDE SIMPAC

12

SIMPAC NEWS

SIMPAC그룹 소식

20

FOCUS

'고순도 도전정신'으로 SIMPAC의 영역을 넓히다

24

현장 인사이드

'국내 최초'로 앞서가는  
60년 업력의 '젊은 공장'

30

SIMPAC 인사이드

경영지원팀 IT파트 이론,  
경험, 실력을 겸비한 IT 전문가



## LIFE & CULTURE

34

워라벨 큐레이션

퇴근 후 짧은 시간에 즐기는  
'생산적인' 취미생활

36

공감토크

심팩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곳,  
우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40

SIMPAC\_STARGRAM

최고스타그램

42

우리들의 이야기

결혼을 축하합니다



FACT & STORY  
**INTRO**  
 #01

# BEST & FIRST

## Best SIMPAC

SIMPAC그룹은 최고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놀라운 성과를 수없이 만들어 왔습니다. 줄곧 찾아온 대내외적 어려움도 우리의 전진과 발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프레스·철강·합금철·산업기계 전문기업'의 자리에 우뚝 섰기에, SIMPAC그룹 앞에는 항상 'Best'가 따라붙습니다.

## First SIMPAC

SIMPAC그룹은 언제나 'Best' 너머의 'First'를 바라봅니다.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우면서도 탄탄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뜨거운 도전정신을 발휘합니다. 트렌드와 시장을 선도해 나가려는 노력과 열정, 'First SIMPAC'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입니다.





FACT & STORY  
INTERVIEW  
#02



성과는 '꿈에 닿기 위한 계단'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며 쌓은 성과가 있기에 꿈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욕심 부리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계단을 하나씩 성실하게 오르겠습니다.

SIMPAC 프레스BU 국내영업팀 강원상 대리

## 남다른 성과로 꿈에 다 가 서 다

원대한 목표를 이루려면 단계별로 유의미한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욕과 조급함을 멀리 하고 흔들림 없는 방향성과 성실함을 장착해야 한다. 여기에 '성과의 덕목'을 실천하고 있는 영업사원 세 명이 있다. 이들의 이야기에서 성과를 이루는 과정과 그 가치에 대한 힌트를 찾아보자.



성과란 '거울'과 같습니다. 노력 없이는 성과가 없고, 성과가 곧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자 성과의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이죠. 성과를 위해 달려온 행적만큼은 속이거나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매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IMPAC 프레스BU 해외영업팀 송시영 과장



만약 중간중간 얻는 성과가 없다면, 삶이 얼마나 무미건조해질까요? 아마 일할 맛이 안 나고, '이 일을 왜 해야 하나' 싶을 겁니다. 그렇기에 성과는 현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오늘을 즐겁게 만드는 '인생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SIMPAC 메탈BU 합금철영업팀 박춘길 사원





**Q 세 분은 올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셨나요?**

**송시영 과장** 저는 일본과 동남아 지역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동남아 쪽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어요. 베트남 최초의 완성차 업체 '빈 패스트'의 공장에 프레스를 성공적으로 납품·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인 도네시아 등의 현지 여러 업체와 협의하며 지속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와중에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 현지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원상 대리** 모든 영업사원은 해마다 새로운 매출 목표를 부여받는데요. 올해의 최대 성과는 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출액과 함께 중요한 게 이익률인데, 경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이익률을 일정 정도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영업활동을 했다는 것도 큰 성과입니다. 2011년 입사 후 작년까지는 주로 업체 발굴에 치중해 왔는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박춘길 사원** 2017년 6월 입사 후 작년까지는 해외영업 부서수로서 다양한 지원 업무를 맡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영업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주요 수출 국가인 터키와 대만에서 판매량이 각각 253%, 66% 상승했습니다. 터키는 현지업체에서 물량이 필요할 때마다 수주를 하는 스팟성 계약이 많아서 납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정기 입찰 위주인 대만의 경우 최적의 납품 조건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수집하고 적용하는데 힘썼습니다. 국내외 유관부서 담당자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Q 성과를 거두는 과정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을 꼽으신다면?**

**강원상 대리** 벌써 6년째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본격적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전화해서 언제 오냐고 물으실 정도죠. 그간 회사 차원의 프레스 구매 계획이 없어서 수주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장님이 '새 프레스를 구매하게 되면 널 믿고 SIMPAC을 선택하겠다'고 말씀하실 만큼 강한 신뢰를 보여주십니다. 덕분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춘길 사원** 스팟성 계약의 경우 납기를 줄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고객사가 원하는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생산 공장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업에서

약을 따내더라도 좋은 품질의 물건을 제때 만들어 내고 배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객사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 영업'과 함께,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 영업'에도 두루 신경 썼던 시간과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무척이나 값집니다.

**송시영 과장** 각국의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다 보면, 새로운 현지 소식과 회사 내부의 정보를 잘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분석하면 한층 효율적으로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고, 이는 곧 회사의 영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죠. 그렇기에 저는 이런 소식과 정보를 접하는 순간순간이 가장 짜릿하고 뿌듯합니다. 제 소통 노력을 현지 담당자들이 아꼈다는 증거니까요.

**Q 성과를 이루며 배운 영업 노하우가 있다면?**

**박춘길 사원** 효과적인 내부 영업을 위해서는 일원화된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컨대 모든 영업사원들이 제각각 물류 담당자에게 연락한다면, 연락을 받는 상대방은 일이 한꺼번에 몰릴수록 복잡하고 힘들기 마련입니다. 사람이기에 자기도 모르게 짜증도 나고, 협조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죠.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해외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매주 월요일에 모여 자체적으로 스케줄 조정을 한 뒤 이를 바탕으로 물류 담당자와 소통합니다. 덕분에 한창 바쁜 기간에도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죠.

**송시영 과장** 프레스는 고가의 설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약은 실무자들과 진행하되 결정 과정은 경영진과 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다양한 사람들과 원활하게 교류해야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젊은 실무자들과는 현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SNS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경영진을 상대하기 위해



SIMPAC 메탈BU 합금철영업팀 박춘길 사원

나라의 성향과 문화를 공부하고 몸에 익힙니다. 이렇듯 각 담당자의 성향과 지위에 걸맞는 소통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보다 좋은 영업적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강원상 대리** 영업사원은 다양한 사람과 사례를 맞이하는 만큼,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될 일도 안 되는 법이니까요. 물론 마인드 컨트롤은 결코 쉽지 않은 영역인데, 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려고 애씁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들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향이 아닌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상황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속상한 마음도 한결 가라앉습니다.

**Q 다가오는 2020년의 계획과 목표를 듣고 싶습니다.**

**송시영 과장**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동남아 시장이 새로운 성장의 무대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동남아 쪽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그간 미처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파악하고, 한편으로는 SIMPAC이라는 이름을 보다 널리 알려서 보다 많은 현지업체의 수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탄탄한 동남 영업의 밑거름'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강원상 대리** 열심히 뛰다 보니 어느새 8년차 영업사원이 됐는데요. 이제는 팀의 소통을 이끌어 가는 연결다리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후배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솔직한 이야기를 선배들에게 전달하고, 선배들이 경험·노하우 원하는 바를 후배들에게 알리는 대화 통로로 거듭나고 싶고요. 영업사원인 만큼 올해와 같이 저에게 주어진 영업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유능한 면모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박춘길 사원** 저희의 영업 비중을 살펴보면 터키·대만·유럽 쪽에 치우쳐진 측면이 있는데요. 다소 낮은 가격대 때문에 그간 상대적으로 신경 쓰지 못한 동남아 지역, 시장은 크지만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영업적 리스크로 진출하지 못했던 미국 등 진출 가능한 모든 시장을 면밀히 검토해 영업 시장을 다각화하고 싶습니다. 2020년의 새로운 목표를 이뤄 회사의 성장에 일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SIMPAC 프레스BU 국내영업팀 강원상 대리



SIMPAC 프레스BU 해외영업팀 송시영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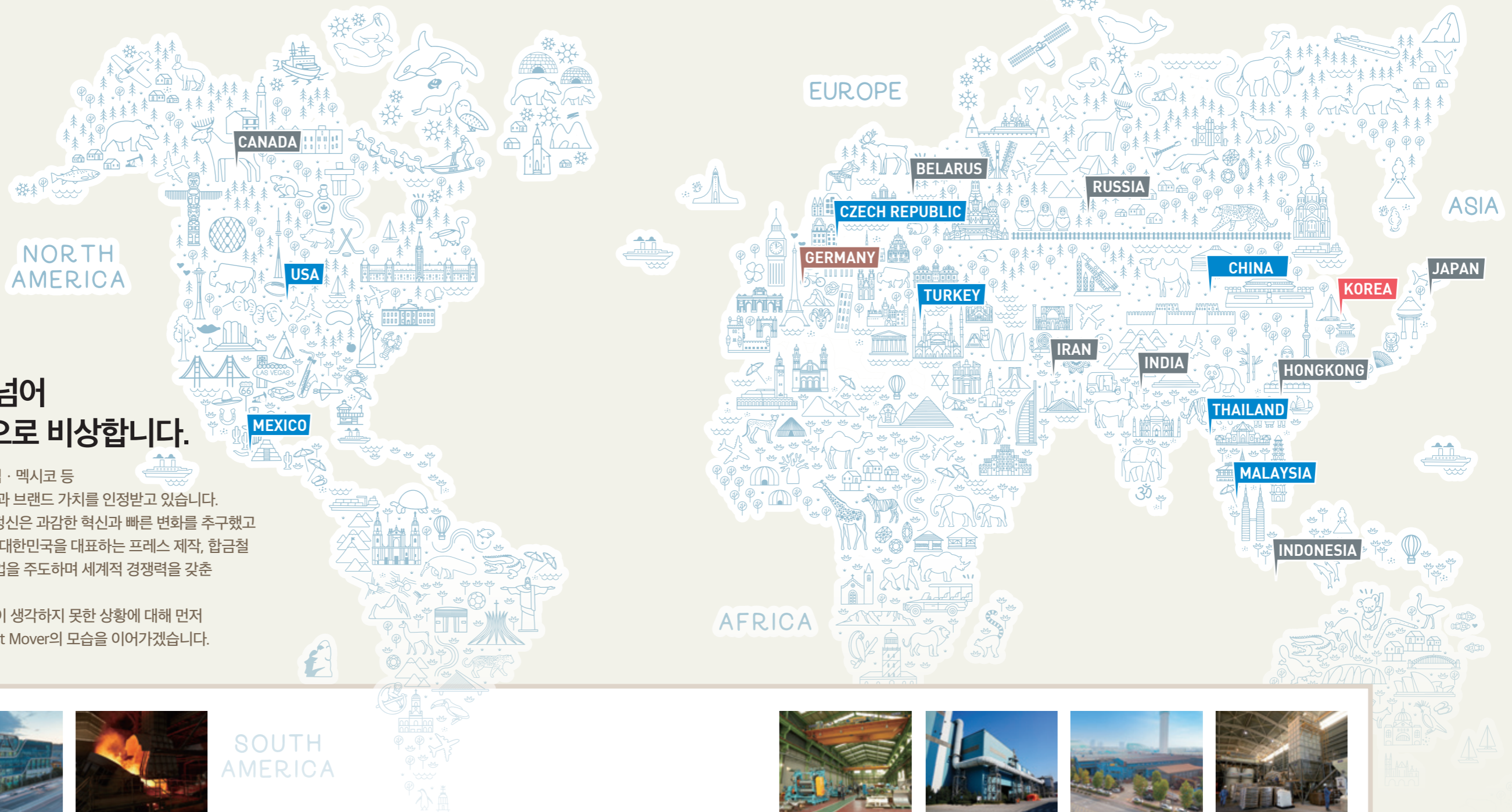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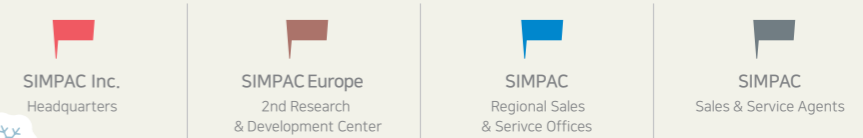




FACT & STORY  
**INFO**  
#03

# SIMPAC은 대한민국 최고를 넘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비상합니다.

SIMPAC은 미국·중국·인도·유럽·멕시코 등 세계 각지에서 SIMPAC만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개척자의 마음으로 걸어갔던 창업 정신은 과감한 혁신과 빠른 변화를 추구하고 그 결과 괄목할 성장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레스 제작, 합금철 개발 및 생산, 철강 유통 및 가공 사업을 주도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SIMPAC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이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먼저 도전하고 그 도전을 이루어내는 First Mover의 모습을 이어가겠습니다.



**SIMPAC홀딩스**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



**SIMPAC 프레스BU**  
중소형, 대형 프레스 제조



**SIMPAC 메탈BU**  
페로망간, 실리콘 망간 생산

SOUTH AMERICA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  
산업기계, 감속기 제조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고순도 페로실리콘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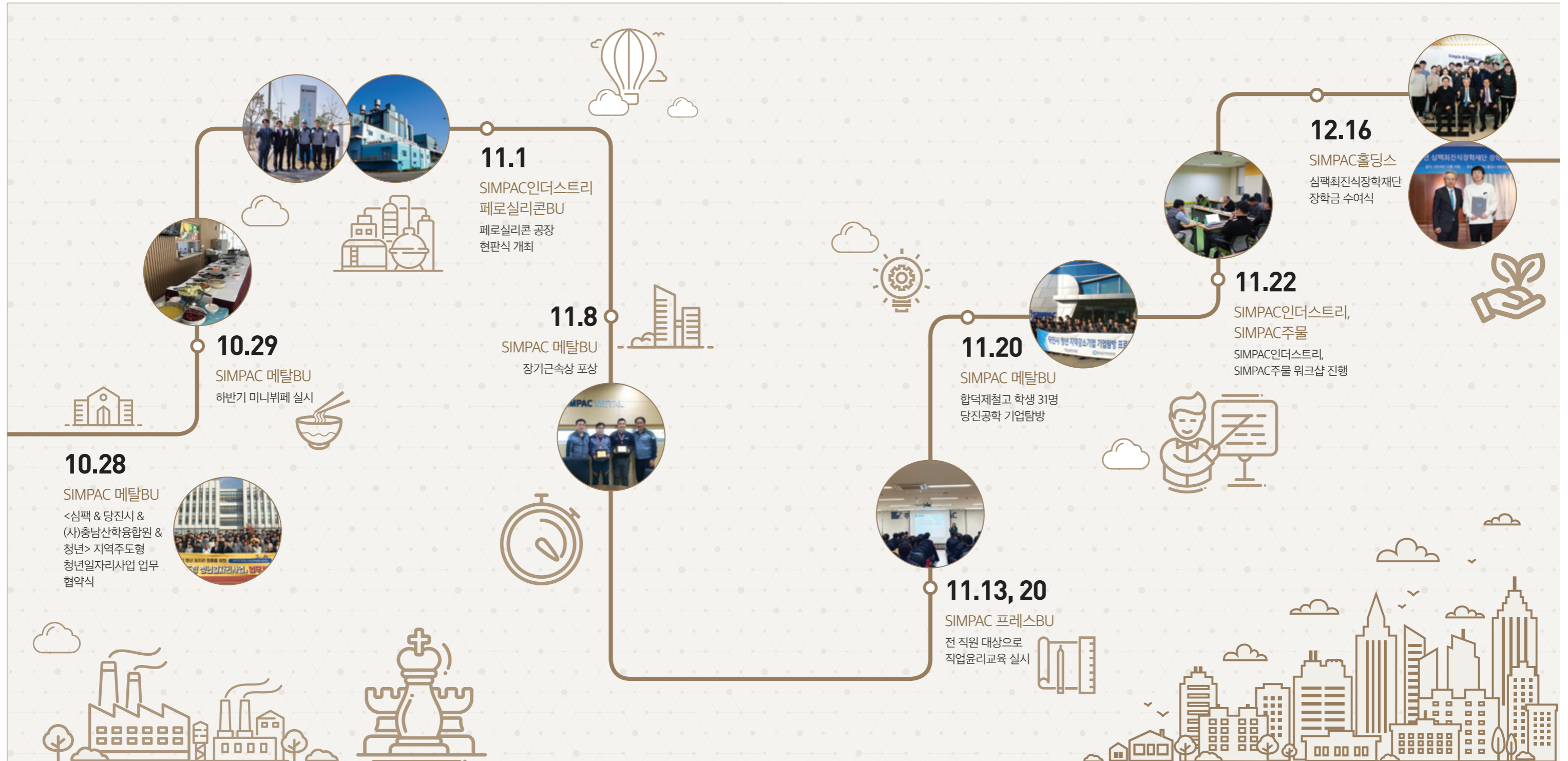
**SIMPAC주물**  
주조(주물) 제조



**리스텍비즈**  
고순도 산화아연 생산



# SIMPAC NEWS





# SIMPAC NEWS

## SIMPAC 메탈BU

### <심팩 & 당진시 & (사)충남산학융합원 & 청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업무 협약식

지난 10월 28일 (사)충남산학융합원 대회의실에서 당진시 & 충남산학융합원 & 청년 & 기업 4자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당진시가 실업 청년을 지역 우수 제조기업과 취업을 연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부족한 인력을 제공받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당진시청 김지환 경제에너지과장과 박상조 (사)충남산학융합원장, 참여기업 대표 및 청년들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참여주체별 지위와 역할 부여, 위탁기관 및 사업장의 의무, 청년의 권리와 의무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시는 협약에 따라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3년간 200만원 수준의 인건비와 직업능력 배양 및 현장 노하우 습득, 경력 형성을 돕고 교육훈련과 취업상담 및 알선을 병행 지원한다.

당진 내 23개 기업체, 총 60명의 배정인원에서 당진공장은 참여 기업체 중 가장 많은 5명의 인원을 배정 받았다. 이로써 당진공장은 5명의 인건비 지원금으로 3년간 총 3억2천4백만원의 인건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하반기 미니뷔페 실시

지난 10월 29일 당진공장에서는 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한 일환으로 구내식당 내 조출한 미니뷔페를 실시하였다. 미니뷔페는 위탁 급식 업체와 2회/년 제공하는 서비스로 금번 하반기는 상반기 때 메뉴를 수정 보완하여 약 15가지의 양질의 메뉴로 실시 하였다. 평소 메뉴에서 배식을 할 수 없었던 초밥, 찜 요리로 직원들이 더욱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당진공장 근로자 대표 김무수주임은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내년에도 이런 이벤트가 지속되면 좋을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 장기근속상 포상

지난 11월 8일 당진공장 사무복지동 대회의실에서 장기근속자 포상을 실시하였다.

금번 당진공장 포상 대상자는 2명이며, 25년 근속 생산팀 전기로반 남호문주임 / 15년 근속 생산팀 전기로반 이현진조장이다. 시상식 11월 실적회의 전 실시 하였으며, 박승배 공장장이 대상자들에게 장기근속 메달 및 표창패를 전달하였다. 시상식은 직원들의 축하와 기념사진 촬영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남호문 주임은 입사 후 현재까지 회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후배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합덕제철고 학생 31명 당진공학 기업탐방

지난 11월 20일 합덕제철고 철강기계과 학생 31명이 당진공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번 방문은 당진시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와 산업현장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하는 '청년 강소기업탐방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탐방기업은 (주)비츠로셀, (주)한성식품, (유)동화, (주)대우공업, (주)SIMPAC 당진공장, (주)미래엔서해에너지, (주)이화글로벌 등 당진을 대표하는 강소·중소기업이 각각 부문별 시장 점유율 상위를 달리는 전문 제조기업이다.

당진공장 탐방은 교육 관련성이 가장 높은 합덕제철고 철강기계과 학생들이 방문하였다. 학생들은 철강회사 이미지와 다른 공장 조경 및 사무복지동 환경에 놀랐으며, 이준기과장의 당진공장 소개 및 민석환과장의 생산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진행시간 내 학생들의 높은 집중과 관심을 보였으며, 회사 채용 및 복지에 관한 사항도 많이 질문하였다. 약 1시간의 소개 시간으로 기업탐방은 종료되었으며, 사무복지동 앞 기념사진으로 기업탐방을 마무리 하였다.





# SIMPAC NEWS

## SIMPAC 프레스BU

### 전 직원 대상으로 직업윤리교육 실시

㈜SIMPAC은 11월 13일, 11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업윤리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은 임직원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다. 2시간의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은 아주 작은것부터 실천하는것이라는 주요 메시지에 대해 전 직원이 공감할 수있는 시간을 가졌다. 당사는 앞으로도 윤리경영 기반의 기업 가치를 추구하여 대내외적으로 기업이미지 제고에 힘 쓸 예정이다.



## SIMPAC인더스트리, SIMPAC주물

### SIMPAC인더스트리, SIMPAC주물 워크샵 진행

11월 22일, SIMPAC인더스트리와 SIMPAC주물은 '원가 경쟁력 제고 방안', '소재생산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의 목적으로 1박 2일간의 워크샵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샵은 이동환 대표이사, 김진현 이사, 한상춘 이사 등 주요 임직원 33명이 참석하였다. 이동환 대표이사 주관으로 진행된 워크샵에서 생산성 증대, 품질향상, 고객만족 및 매출증대 목적으로 다양한 전략과제들이 도출되었으며 해당 과제들을 도출하고자 많은 전략목표들이 수립되었다.



## SIMPAC그룹



### 심팩최진식장학재단, 우수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 실시

2019년 12월 16일, (재)심팩최진식장학재단에서는 동국대학교 행정/외무고시 1차(이상)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최진식 회장, 삼정KPMG 윤학섭 대표, 동국대학교 배광빈 교수와 15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최진식 회장은 "시험의 당락으로 인생이 결정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끝없는 경쟁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고, 과정을 거쳐 무엇을 얻고 어떤 길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대표이든 직원이든 어떤 자리에서도 삶의 자세에서 매년 1등을 하길 바란다. 인생은 꿈을 가지고 가는 과정이다. 즐겁게 이뤄 나가길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심팩최진식장학재단은 잠재력 있는 인재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핵심인재 양성,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2008년 12월 3일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1,058명의 학생들에게 22억 5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가능성 있는 인재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꿈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갈수 있도록 활발한 장학사업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 SIMPAC NEWS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 세계 최고의 원가경쟁력을 가진 고순도 FeSi 공장으로 도약

국내 유일의 고순도 페로실리콘 생산 기지 확보  
합금철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SIMPAC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견인



▶ FeSi 공장 현황 보고



▶ 주요 임직원 및 협력사 참석 공장 현판식 개최



▶ 만찬 및 주요 내외빈 격려사



▶ 주요 생산시설 투어

### 고순도 페로실리콘(Fe-Si) 공장 현판식 행사 개최

- SIMPAC은 최근 포스코 페로실리콘 공장을 인수하고 지난 11월 1일 SIMPAC인더스트리 고순도 페로실리콘(Fe-Si) 공장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 페로실리콘은 합금철의 일종으로 제련 과정에서 탈산 등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며 전기강관 생산시 첨가제로 쓰인다. 페로실리콘 공장은 포스코가 포항시 오천읍에 위치한 광명일반산업단지 내 10만㎡(3만평) 규모에 1,433억원을 투자해 지난 2013년 준공됐다.
- 이날 행사에는 최진식 회장, SIMPAC 메탈BU 송호석 대표이사, SIMPAC 인더스트리 이동환 대표이사, SIMPAC 프레스BU 심운섭 대표이사,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송경석 공장장, 임희석 기장 등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 60여명이 참석했다.

최진식 회장은 “고품질의 제품생산과 합금철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SIMPAC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는 선봉장이 되어주길 당부”하는 한편, 송호석 대표이사는 “초기 조업안정화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며, 포스코와의 협력적인 유대관계 속에서 SIMPAC의 주력 사업 영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

송경석 공장장은 “세계 최고의 원가경쟁력을 가진 고순도 FeSi 공장으로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의 시선은 현재 생산 중인 고순도 페로실리콘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SIMPAC의 보다 다양한 합금철 시장 진출을 돕는 교두보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공장의 안정화를 이루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업무 숙련도를 올리기 위한 교육훈련도 함께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 FeSi

# 2019.11.1



## ‘고순도 도전정신’으로 SIMPAC의 영역을 넓히다

적극적으로 도전할수록 혁신적인 미래를 완성할 확률이 높아진다. 올 11월 우리 그룹의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 인수도 이러한 도전정신의 일환이다. 이번 인수를 통해 탄생한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는 과연 SIMPAC에게 어떤 성과를 가져다줄까. 그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펴보자.



###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블루오션 선점’을 동시에 이룬다

지난 11월 1일, 포항시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에 자리 잡은 10만㎡(약 3만 평) 규모의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이 우리 그룹에 편입됐다. 포스코의 철강 부원료 생산 계열사인 포스코엠텍으로부터 인수를 결정한 뒤, 3개월여의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SIMPAC의 새 식구로 거듭난 것.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은 신설된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소속으로서, 규소 합금철 시장 진출의 선봉장 역할을 맡게 된다. 그동안 SIMPAC 메탈BU 포함1공장과 당진공장에서는 페로망간-실리콘망간 등의 망간계 합금철을 주로 생산해 왔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는 많이 쌓였지만, 생산품종 다각화와 시황 변동에 따른 사업 리스크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에 인수한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은 이러한 갈증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규소 합금철의 일종인 페로실리콘은 일반적으로 제강공정에서 쇳물의 온도를 올리는 승열제로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범용 페로실리콘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고순도 페로실리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소재인 전기강판을 만드는 데 있어 꼭 필요한 합금철이다. 칼슘-알루미늄-티타늄 등 페로실리콘에 섞여 있는 불순물 함량을 극한까지 끌어내림으로써 전기강판의 에너지 효율을 한층 높이는 데 일조하는 것. 고순도 페로실리콘의 도움을 받아 탄생한 전기강판은 변압기-모터 등의 철심 재료로 사용되며, 세계적 전동화 추세에 따라 그 수요량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송경석 공장장의 예상도 이와 다르지 않다.

“고순도 페로실리콘은 제조하기 까다롭고 엄격한 공정 관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몇 개 기업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곳 공장은 국내 유일의 고순도 페로실리콘 생산 현장이죠. 따라서 이번 공장 인수는 현재의 합금철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합금철 블루오션’을 선점한다는 의미도 두루 지니고 있습니다.”

송경석 공장장

생산총괄  
임희석 기장





66

이번 공장 인수는 현재의 합금철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합금철 블루오션'을 선점한다는 의미도 두루 지니고 있습니다.

99

### 조업 안정화를 향한 다각적 노력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은 전기로 2기에서 연간 3만 4천여 톤의 제품을 생산한다. 포스코의 연간 사용량 12만 톤의 30%에 가까운 양이다. 지금은 전기로 한 기가 휴지기에 들어가 있지만, 내년 상반기 정비를 거쳐 재가동하면 연 700억 원 내외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전기강판 사용량 증가에 따라 그 가치가 증가할 것임은 물론이다.

이렇듯 청사진이 펼쳐진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이지만, 송경석 공장장은 기대와 설렘에 앞서 공장의 안정화를 이루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인수인계 기간이 있었지만 고순도 페로실리콘 생산은 처음이거니와, 모든 공정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과정 또한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 입사한 직원 24명의 업무 숙련도를 올리기 위한 교육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빡빡한 상황. 송경석 공장장은 교대 배정을 통해 어려운 숙제를 풀었다.

"현장은 5명이 한 조로 구성돼 있고, 4개 조가 3교대로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따로 교육훈련 시간을 빼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조에



| 생산총괄 임희석 기장

2명씩 포항1공장의 베테랑 직원들을 배정해 업무와 현장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분들이 모두 '에이스'라 불렸고 새로운 분야의 도전을 자처한 핵심 인재여서,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큰 탈 없이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현장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생산총괄 임희석 기장은 "나부터 배운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한다"고 말한다. 합금철 생산 경험과 노하우는 명장이라 불려도 손색없을 정도지만, 고순도 페로실리콘은 생산해 본 적이 없는 만큼 방심하지 않고 현장의 상황에 늘 촉각을 곤두세운다는 것. 특히 2명 이상이 필요한 업무 시 단독 작업 절대 금지, 단계별 안전사항 준수 등 현장 직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쓴다는 것이 임 기장의 설명이다.

"현장을 지휘하다 보면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공장을 돌리며 인수인계를 무사히 받았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직원들에게도 '우리가 있어 이 공장이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자고 독려하죠. 올해는 안전사고 없이 공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내년부터는 좋은 조업 성적을 만들기 위해 힘쓸 생각입니다."

### 전사적 시야로 바라보는 공장의 미래

현재 철강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공정 부산물인 '슬래그'와 '더스트'다. 이를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많은 기업들은 끊임없이 비용을 지불한다. 하지만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은 다르다. 공정 특성상 슬래그가 없다면 한 데다가, 더스트에 이산화규소(실리카) 성분이 93% 이상이다 보니 고급 시멘트의 강도를 높이는 충전재로 사용된다. 따라서 이 공장에서는 따로 슬래그와 더스트 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스트 판매 비용으로 추가 수익을 얻고 있고, 더불어 환경오염도 최소화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생산량 증대, 부가가치 창출 등 다양한 매출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지금은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안정화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기도 하지만, 차차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개선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37명 직원 모두가 희망을 갖고 일합니다. 신입사원이 대거 들어와서 인적 구성이 젊어진 만큼 '생각이 젊은 공장',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장'이라는 비전으로 차근차근 나아가고 싶습니다."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의 시선은 현재 생산 중인 고순도 페로실리콘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자신들의 성과가 SIMPAC의 보다 다양한 합금철 시장 진출을 돕는 교두보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그렇기에 더욱더 많은 바 임무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는 송경석 공장장과 현장 직원들. 이들의 강렬한 도전정신을 듣고 있자니,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의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 '국내 최초'로 앞서가는 60년 업력의 '젊은 공장'

보통은 '60년 업력'과 '젊다'는 말을 접붙이지 않는다. 하지만 SIMPAC 메탈BU 포항1공장이라면 가능하다. '국내 최초 합금철 생산기업'으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데다가, 젊은 인재들의 패기와 열정으로 새로운 '국내 최초'를 속속 탄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오명섭 사원 | 생산팀  
이호현 사원 | 전기로 D조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혁신 DNA'

포항1공장은 1959년부터 켜켜이 쌓은 합금철 생산 경력을 바탕으로 1979년 5월에 준공된 뒤, 지금까지 줄곧 고품질 합금철을 만들어 온 SIMPAC 메탈BU의 핵심 공장이다. 임직원 73명이 전기로 4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각종 철강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합금철인 페로망간과 실리콘망간을 연간 10만 톤가량 생산한다. 이곳에서 생산된 합금철은 포스코·현대제철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기업에 안정적으로 납품되고 있다.

한편 포항1공장은 2012년부터 스테인레스강을 만들 때 사용되는 합금철인 페로니켈 크롬도 생산한다. 광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페로망간·실리콘망간과 달리, 페로니켈크롬



롬은 제강 과정 중 발생하는 부산물을 녹인 뒤 필요한 물질만 걸러내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부산물 제공업체는 폐기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좋고, 포항1공장은 합금철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한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좋다. 더불어 부산물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으니 모두에게 득이 되는 사업인 것. 생산팀 오명섭 사원이 자부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잇는다.

"SIMPAC은 '국내 최초 합금철 전문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 페로니켈크롬을 생산함으로써 포항1공장도 '국내 최초 페로니켈크롬 임가공 공장'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거둘 수 있었던 성과죠. 제가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진행된 일이지만,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 저 또한 포항1공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올 8월에 입사한 전기로 D조 이호현 사원도 똑같은 마음가짐이다. 전기로 출탕 업무의 부사수로서 이제 막 일이 손에 붙기 시작했지만, 선배들이 강조하는 점과 업무 노하우를 새겨듣고 한층 효율적이고도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해 애쓴다. 포항1공장에 면면히 흐르는 '혁신 DNA'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소통과 협력으로 이루는 '상생 발전'

최근 포항1공장의 또 하나의 새로움이 깃들고 있다. 올해 5월 말 첫 발을 댄 페로니켈 임가공 사업이 그 주인공. 페로니켈크롬과 같이 제조사로부터 부산물을 공급받은 뒤 용융·정련을 거쳐 순수한 페로니켈을 만들고, 이를 판매해 부가수익을 얻는다. 포항1공장이 이처럼 생산품종 다각화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합금철 시장의 특수성 때문이다. 합금철은 시황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 철강업계 경기가 좋으면 그만큼 합금철도 많이 쓰이지만,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생산량과 값이 낮아진다. 따라서 합금철 기업은 시황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생산품종 다각화다. 포항1공장은 이 문제에 있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합금철 공장으로, 페로니켈 생산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페로니켈 임가공 사업도 저희가 국내 최초입니다. 그러다 보니 용융·정련·출탕 등 생산 전 과정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 꽤 애를 먹었죠. 특히 출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점과, 쇳물이 예기치 않게 튀는 취출 현상을 막기 위해 포항1공장의 R&D 역량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결과 11월 현재 2차 테스트까지 무사히 완료됐고요, 최종적으로 생산 과정을 개선·보완하고 사업성을 검토하는 단계를 거치는 중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장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을 지속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사무실과 생산 현장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다. 사무실 직원들은 현

장의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며 생산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체 수급·근무 여건 개선 등에 신경 쓴다. 한편 현장 직원들은 사무실과 소통하며 공장의 방향성과 생산상 변화 및 특이사항을 전달받고 업무에 적용한다. 서로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거나 전화를 주고받으며 소통하기도 하지만, 공장의 전체적인 사항들은 관리직과 생산주임·반장·선임직원이 모두 모이는 월례회의를 통해 세세하게 공유한다.

"사무실과 현장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비로소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무실의 R&D 역량과 현장의 생산 능력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다면 취출 현상 방지, 출탕 과정 개선 등의 문제점을 빠르게 해결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를 포함한 포항1공장 임직원들은 이를 명심하며, 공장 전 분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좌측부터 생산팀 오명섭 사원, 전기로 D조 이호현 사원







### 젊은 에너지로 내일을 밝히다

포항1공장은 SIMPAC 메탈BU의 '인재 인큐베이터' 역할도 맡고 있다. 2012년 당진공장 가동 시 포항1공장에서도 온 베테랑 직원들이 중심축으로 활약했다. 올 11월에 SIMPAC의 가족이 된 페로실리콘BU 포항공장에도 포항1공장의 핵심 인력이 총원됐다. 포항1공장의 60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두루 길러내고 있는 것. 오명섭·이호현 사원도 그 혜택을 이어받은 'SIMPAC의 미래'다.

“선배님들은 경험 부족한 저희들에게 기꺼이 그간의 이야기와 업무 노하우를 알려 주십니다. 덕분에 맡은 바 임무를 더욱더 수월하게 수행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와 공장의 혁신 요소를 선배님들과 함께 찾아 냅니다. 서로를 가르치고 돕는 분위기가 흐르다 보니 팀워크도 단단하고, 해야 할 일에도 오롯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포항1공장의 다양한 성과들은 이러한 협력의 기반 위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20년 합금철 시험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소식이 벌써부터 들려온다. 하지만 포항1공장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사업 다각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고, 올 하반기 페로니켈이라는 또 다른 무기도 갖췄다. 사업성 검토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내년에는 정식 계약을 맺어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더불어 저부하 조업 등을 통해 생산 원가를 절감하려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기 위한 시장조사 및 검토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포항1공장에는 오명섭·이호현 사원과 같이 혁신 유전자를 이어받은 젊고 패기 넘치는 직원들이 있다. 불경기 소식에도 포항1공장의 미래가 낙관적인 이유다.



## 포항1공장에 대한 정의



### 전기로 D조 이호현 사원

노련한 베테랑 선배들과 열정 넘치는 젊은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포항1공장은 'SIMPAC의 엔진'이라고 자부한다.



### 생산팀 오명섭 사원

포항1공장은 '희망'이다. 내년 합금철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품종 다변화 등 어려움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착실하게 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SIMPAC  
경영지원1팀  
IT파트

이론, 경험, 실력을  
겸비한 IT 전문가

영업 성과와 매출과는 직결되지 않지만 회사의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IT파트다. 네트워크를 통해 SIMPAC을 하나로 연결하고  
회사에 필요한 시스템을 확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정철우·정원식·현창우 과장과 송준혁 사원. 2019년 한 해를  
그 누구보다 바쁘게 보낸 이들 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정원식 과장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감동을  
얻고

송준혁 사원

도움이 되는 부서,  
도움이 되는 사람을  
위해!

정철우 과장

회사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는 자긍심으로!

현창우 과장

IT 전문가로서 더 큰  
역량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SIMPAC을 하나로 연결하다

IT파트는 SIMPAC 전 그룹사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안, 네트워크 등의 IT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다. SIMPAC을 신체로 비유한다면, IT파트는 혈관을 만들고 그 속의 혈액이 잘 흐를 수 있게 하는 일을 맡고 있다. 영업 성과와 매출과는 직결되지 않기에 때로는 있는 듯 없는 듯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 IT파트가 없는 SIMPAC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이들의 존재가 가장 잘 드러날 때는 네트워크나 전산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소소하게는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다. 그러면 IT파트에 가장 먼저 지원요청을 하게 된다. 정철우 과장은 IT파트를 '해결사'로 비유했다. "SIMPAC IT 인프라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 전 사업장과 소통을 합니다. 신규 사업이 발생하면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해결해주고요. 데스크톱, 노트북 등의 전산기기 구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관련 데이터를 뽑아 현업부서에 제공하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SIMPAC의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해결사 같은 팀입니다."

전사적인 IT 인프라를 담당한다는 것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전체 업무 프로세스의 흐름을 익게 되어 회사를 알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직급에 상관없이 PM 또는 PL이 되어 개발, 기획 등의 업무를 맡아 프로젝트를 리드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IT파트의 큰 경쟁력이다. 하지만 바쁜 업무 때문에 서로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많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 "외근이나 지방 출장으로 함께 모일 시간이 많지 않아요. 개인별 단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끔씩 도서관 같은 분위기가 나고요. 타 팀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일하는 팀이라 지원을 요청하는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회의도 많이 진행되고요. IT파트는 무엇보다 내부직원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창우 과장의 말에 세 사람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IT파트는 팀원과 부서간 소통 및 학습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인사팀과 함께 '나눔데이'를 진행하고 있다.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와 같은 이슈 키워드를 학습하여 공유하는 자리다. 이 밖에도 IT파트는 스크럼 회의, 칸반(Kanban)보드 회의 등을 활용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변화를 만들어가면서 얻는 보람

올해 IT파트는 굵직굵직한 업무를 해냈다. 현창우 과장과 송준혁 사원은 올 1월부터 9월까지 SIMPAC인더스트리 제조원가 및 ERP PI(Project Innovation) TFT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을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 결과, 원가 데이터를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밀한 데이터를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현창우 과장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며 미소 지었다.



송준혁 사원



정철우 과장

"프로젝트가 끝나고 3개월이 흘렀습니다. 시스템을 모니터링 해보니 ERP 시스템 내에 벌써 많은 정보가 구축되었고, 그 정보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운영에 이바지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합니다." 지난 10월에는 SIMPAC이 고순도 페로실리콘(Fe-Si) 생산공장을 인수함에 따라 정철우 과장과 송준혁 사원이 한 달 넘게 포항에서 지내며 ERP 구축을 진행하고 왔다. ERP 구축은 올해 중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이면서도 철저한 개선작업을 이뤄나갈 예정이다. 정원식 과장은 내년에 있을 '원도우 10' 이슈에 대비, 각 계열사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기획하였고 현재 전사적인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원식 과장은 지난해 주 52시간 근무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현해 심팩인상을 받은 바 있다.

정철우 과장은 "조직이 점차 변화하고 발전하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또 팀원들이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프로젝트 수행 후 성취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물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려움도 많다. 부서별로 지원 요청이 많은 데다, 급한 업무라며 서로 "빨리빨리"를 외칠 때는 난감한 상황도 발생한다. 송준혁 사원은 "한꺼번에 일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정해 업무를 진행하는데, 때로는 일이 늦어진다며 불만을 표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T파트는 타 부서에 도움을 주는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듦은 극복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며 각오를 전했다.



현창우 과장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

IT파트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보안이다. 각종 중요한 정보가 서버에 전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유지에 심혈을 기울인다. 부서별 중요한 정보를 볼 수 있는 부서이기에 때로는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해야 할 때도 있다. 팀 내에서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철칙은 일정 준수다. 계획한 기간 안에 정해놓은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면 타 부서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IT파트는 내년에 IT 헬프데스크(Helpdesk) 시스템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가령 PC의 네트워크 장애를 해결해주는 헬프데스크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핵심 업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입니다. 그런데 헬프데스크 업무가 핵심 업무 진행을 방해할 정도로 매우 많은 편입니다. 업무 효율성 면에서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에 해외사례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하여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IT파트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습문화를 더욱 탄탄히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IT역량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IT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과 경험, 그리고 실력을 겸비한 IT전문가 네 사람이 더 나은 SIMPAC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틀이 되고 있다.



정원식 과장



## 퇴근 후 짧은 시간에 즐기는 '생산적인' 취미생활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윤대현 교수는 취미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뇌에는 '일하기 회로'와 '놀이 회로'가 있는데, 일하기 회로만 계속 가동하다 보면 두 회로가 협력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경쟁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일만 하다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력해지는 번아웃 증후군을 겪게 된 사람들은 갑자기 놀아보려고 해도 불안을 느낀다. 평소에 연습과 훈련을 통해 '노는 능력'을 키워야만 짧은 휴식에도 에너지가 급속 충전된다. 일할 때 열심히 일한 만큼 놀 때도 열심히 놀아야 한다는 뜻이다. 윤대현 교수가 말하는 '논다'는 개념은 일을 안 하는 상태를 말하지 않는다. 즐기고 몰입하는 것 외엔 어떠한 목적도 없는 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상태다. 이런 활동을 우리는 취미라고 부른다. 그러니 즐거운 취미생활을 통해 생활의 활력을 끌어올려 보자.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의 생산성까지 높아질 수 있겠다. 최근 직장인들에게 각광받는 '생산적인' 취미생활을 소개한다.

### (1) 나도 강의 한 번 해볼까?

퇴근 후에 의외로 강의를 듣는 직장인이 많다. 어학 점수를 높이거나 실무와 연관된 세무나 법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소소한 강의를 찾아 듣는다. 여행 계획을 짜기 위해 여행작가의 북토크에 참여하기도 하고, 수제 맥주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모여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새로운 취미에 도전한다면 강의를 찾아 들어보는 것이 정석. 그런데 이미 수준급에 달한 취미를 갖고 있다면? 사진작가 뽀치게 카메라를 잘 다룬다거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엑셀 실력을 갖고 있다거나, 오랫동안 갈고 닦은 악기 연주 실력이 있다면 직접 강의를 시작해보자. 요즘엔 실력만 있다면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다. 진정으로 생산적인 취미생활이 아닐 수 없다.

**해피칼리지** | 누구나 가르치고 배우는 1인 대학  
[www.happycollege.ac](http://www.happycollege.ac)

**숨고** | 내 주변의 숨은 강사를 찾고 매칭하기  
<https://soomgo.com>

**인프런** | 지식을 나누면서 수익 창출을 도모하기  
[www.inflearn.com/open-knowledge](http://www.inflearn.com/open-knowledge)



### (2) 나도 유튜브 한 번 해볼까?

초등학생이 선호하는 직업 1순위가 '건물주'라는 우스갯소리는 옛말이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은 '크리에이터'다. 텔레비전보다 유튜브가 익숙한 세대가 자라고 있다. 1인 1채널 시대가 멀지 않았다. 취미생활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거나 SNS에 사진을 올려왔다면 이젠 플랫폼을 바꿔보자. 집집마다 전화기를 놓던 시대에서 스마트폰 시대로 훌쩍 넘어온 것처럼 유튜브는 영상 미디어의 넘볼 수 없는 채널이 될 것이다. 보기만 하던 유저에서 직접 영상을 만드는 유저가 되어보자. 세대 차이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자. '유튜브를 가장 자주 이용하는 세대는 10대이지만 유튜브를 가장 오래 시청하는 세대는 의외로 40대, 50대다. 오랫동안 꾸준히 업로드를 하면 언급처럼 쓸쓸하게 용돈을 벌 수 있는 취미이기도 하다.

**유튜브** | 사용자가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무료 동영상 공유사이트 [www.youtube.com](http://www.youtube.com)

I ♥ BOOKS

### (3) 새로운 공간을 탐험해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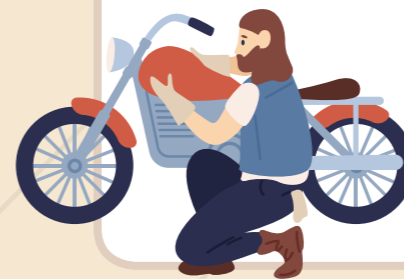
뉴스에는 매년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기록 갱신이 이어지지만 직장인들이 주말 외에 연차와 월차를 쓰며 여행을 다니기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지 최근에는 '작은 여행'이 붐이다. 스마트한 기기와 다양한 앱이 새로운 공간을 주지시킨다. 혼밥, 먹방, 맛집 탐방의 트렌드는 퇴근 후에 거리가 약간 멀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찾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냈고, 호캉스의 유행, 당일 예약이 가능한 숙박 앱과 내 집 같은 느낌의 에어비앤비는 가까운 곳이라도 새롭게 방문할 여지를 만들어냈다. 책맥 카페, 북카페, 디저트 카페 같은 카페의 변신도 마찬가지. 매일 저녁 마넨 다른 공간을 방문하며 새로운 마음을 다져볼 수 있다.

**트립어드바이저** | 서울까지 아우르는 세계 최대 여행 플랫폼 [www.tripadvisor.co.kr](http://www.tripadvisor.co.kr)  
**에어비앤비** | 파티하우스에서 한 달 살기까지 목적에 맞는 숙소찾기 [www.airbnb.co.kr](http://www.airbnb.co.kr)



### (4) 특별한 액티비티를 시작해볼까?

직장인이어서 좋은 점은 매달 일정한 수입을 고정적으로 받는다는 점. 그래서 학생이나 취준생, 프리랜서와 달리 조금만 부지런하다면 욕심껏 취미생활이 가능하다. 여름 휴가 때 발리에서 서핑을 하기 위해 주말마다 양양을 찾는다던가, 겨울이면 스키장의 시즌권을 구매한다던가, 스크린 골프에 도전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수영이나 요가, 피트니스, 자전거, 크로스핏 같은 체육관 운동은 기본이요, 스킨스쿠버 동호회를 찾아가 활동하고, 아르헨티나 탱고를 배워 공연을 하고, 등산과 캠핑과 트리클라이밍에 도전하기도 한다. 한강에만 나가도 카약과 키누 뿐만 아니라 윈드서핑, 카이트서핑이 가능하다.





**이은오 대리**  
 기한 안에 맡은 바를 완수해  
 내는 건, 조직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한 내에  
 정확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 심팩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곳,

**엄동현 사원**  
 일할 때는 오직 업무에만  
 집중하세요. 업무에도 흐름  
 이라는 게 있어서, 다른 데  
 신경을 쓰면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



**김경태 대리**  
 조금함은 일을 망치는 이유가  
 되곤 합니다. 한 템포 쉬어가는  
 여유를 가질 때, 업무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죠.



## 우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2019년 10월, 심팩그룹은 다시 기지개를 켜고 나섰다.  
 심팩 메탈이 심팩으로 통합되는 전략적 변화에 발맞춰,  
 계열사별 재무관리를 한 지붕 아래로 모은 것이다.  
 이름하여 심팩그룹 재무본부.  
 흩어져 있던 재무관리 인재들이 한곳에 모여면서,  
 심팩그룹은 더 크고 단단한 날개를 달았다.  
 회계팀과 자금팀으로 구성된 17명의 임직원은,  
 앞으로 어떤 날갯짓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들이 만들고 있는 재무본부의 일상다반사를 들여봤다.





업무는  
신속하게  
관계는  
애뜻하게

재무본부가 서울 여의도에 자리를 튼 지 두 달여. 혹시라도 뜻밖의 분위기를 상상했다면, 단단히 오해한 것이다. 재무본부라는 새 이름표는 달았지만, 그 구성원은 각 계열사 재무관리를 책임져온 이들이기 때문이다. 흩어져 있던 전문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누구보다 진지한 건 당연지사. 책상과 한 몸이 돼 서류에 빠진 동료들을 대신해 이은오 대리가 입을 열었다. “재무본부는 그저 새롭게 생긴 조직이 아닙니다. 외부적으로는 심팩그룹의 재무관리가 한곳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진다는 신뢰를 주고요.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인 보고와 소통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나무를 잘 키우려면 적절한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처럼요. 그간 재무관리에 있어 불필요한 업무 절차와 동선을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실제 재무본부가 설치되고 업무환경에 변화가 찾아온 게 사실이다. 이제 시작 단계지만, 김경태 대리는 업무처리가 한결 간결해졌다고 설명했다. 그 뒤에는 얼굴을 마주하는 직접 소통이 있었다. “근무 공간이 달랐을 때는 전화나 메시지로 질문과 답을 주고받았거든요. 간접적으로 소통하다 보니 중간중간 끊기는 느낌도 있었고요. 업무 외의 말을 나누기가 다소 어색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옆자리 뒷자리에서 일하다 보니 신속한 정보공유는 물론이고요,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논의가 가능해서 업무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김경태 대리의 말에 엄동현 사원이 거들고 나섰다. “저는 미처 알지 못했던 직원들을 만나면서 친분이 쌓이고, 대화거리도 많아진 점이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수 없이 혼자 근무하느라 외로웠거든요. 이렇게 실력 있고 유머까지 갖춘 분들과 부대끼면서 일하니 외로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은 재무본부가 설치되기 전부터 얼굴 없이 업무차 연락을 이어왔다. 서로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지만, 시간을 갖고 따로 만날 기회는 없었다. 처음 코앞에서 마주했을 때, 상상한 것과 비슷한 모습 그리고 태도에 반가움이 컸다고 했다. 혹시 예의를 차리는 건가 싶었는데, 서로를 향해 피식 웃는 모습이 진짜임을 말해주었다.

“지난 10월 말쯤에 그룹 회계감사가 이뤄졌습니다. 예전에는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받느라 품도 제법 들고 대응하기도 번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재무본부에서 한꺼번에 회계감사가 진행되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실무자들이 즉시 내부 논의를 거쳐 빠르게 대응을 해냈습니다. 재무본부의 필요성이 빛났던 첫 번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오 대리의 이야기에 두 사람도 맞장구를 쳤다. 재무본부의 시작이 관촬었다며,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자신들도 궁금하다고 털어놓았다.

이왕 하는 일  
우리답게  
재미있게

기업에 있어 재무관리는 기업의 건강함과 가치를 지키고 만드는 열쇠가 된다. 흑자를 기록하던 기업이 방치된 재무관리로 위기를 맞은 적이 있지 않던가. 구석구석 바지런한 기름칠로 백 년 된 재봉틀을 가꾸듯, 심팩그룹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정확한 재무관리는 윤희유가 필요하다.

“미래를 계획하려면 소득이 얼마고 어디에 돈을 썼는지 정리된 데이터가 있어야 하죠. 가정에서는 가계부가, 기업에는 재무관리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아무리 많은 매출을 올려도 자금을 잘 쓰고 아끼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어두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김경태 대리는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 압박감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숫자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날을 세우게 된다.

“다들 비슷할 거예요. 처음에는 숫자가 안 맞으면 머릿속이 하얗고 가슴이 답답해지다가요. 계속 확인하다 보면 잘못된 게 보이고, 그때야 체증이 쑥 내려갑니다. (웃음) 실감 나는 이은오 대리의 말에 엄동현 사원이 고민 하나를 더했다. “저는 기한이 정해진 업무가 여러 개 겹치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일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방법을 찾다가 안 되면 자연스럽게 야근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묘수가 있을지 고개만 가웃거리는데, 이은오 대리가 경험에서 우리나라 비법 전수에 나섰다. “그럴 땐 솔직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업무 과부하 상황을 상사에게 바로 알려서, 기한을 조정하든지 도움을 받든지 하는 거죠. 도움을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혼자서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완벽한 정확성이 요구되다 보니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은 건 분명한 일. 그러다 보니 숫자와의 동고동락은 세 사람에게 뜻밖의 습관도 만들어주었다. “워낙 엑셀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 개인적인 재테크 정리를 할 때도 엑셀을 켜게 되더군요. 일상이 엑셀화 됐다고 할까요?”

김경태 대리에게 엑셀이 있다면 이은오 대리에게는 계산기가 함께한다. 무조건 정확해야 한다는 생각에 단순한 계산도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속이 시원해진다고. 입사 후부터 억 단위가 천 원짜리 만큼 친근해진 건 엄동현 사원이다. 억 단위가 그저 숫자로만 보이는 게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단다.

“그런 습관도 일이 자신과 맞으니까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왕 하는 일이니까 새로 만난 같은 직급, 또래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밌게 일했으면 합니다.” 재무본부 구성원을 위해 맡은 책무도 잘하고 싶다는 이은오 대리와 자신도 선배들을 열심히 서포트하는 후배가 되겠다는 엄동현 사원. 두 사람이 들려준 닳은 각오는 재무본부의 내일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여기에 업무가 아니라도 가깝게 지낼 기회를 만들자는 김경태 대리의 바람까지 더해지니, 말 그대로 금상첨화. 함께여서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란, 바로 이들 같은 동료가 있는 곳이 아닐지.



좌측부터 엄동현 사원, 김경태 대리, 이은오 대리 |





# SIMPAC STARGRAM

SIMPAC인 여러분의  
생활 속 장면과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번 호는 '내가 최고'를 주제로  
심팩인들의 일상을  
함께합니다.

## 최고스타그램

이 코너는 사우들의 투고를 받아 인스타그램 형식으로 재구성합니다.  
사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와 사진은 각 사 사보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CONGRATULATIONS!



HAPPY WEDDING

2019. 10. 5

SIMPAC 프레스BU 전기설계팀 유재국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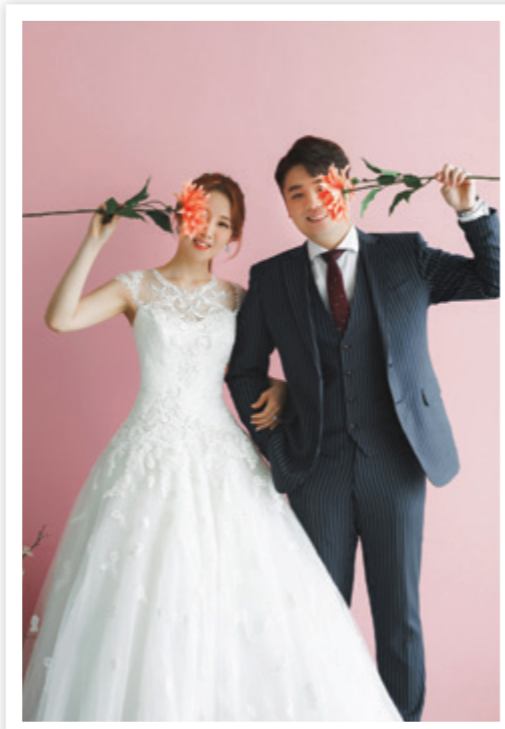


제가 드디어 인생의 단락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때로는 연인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겠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같이 많이 웃고 울고, 눈물도 닦아주면서 재미있게 살자. 많이 사랑해~”

2019. 11. 2

리스텍비즈 생산팀 이원재 사원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앞으로는 하나가 되어 하나의 길을 만들어 행복하게 살자!

# 하나된 변화, 새로운 도약

SIMPAC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레스 제작, 합금철 개발 및 생산, 철강 유통 및 가공 사업을 주도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의 SIMPAC을 있게 한 원천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이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먼저 도전하고 그 도전을 이루어 내는 First Mover의 모습을 앞으로도 이어가고자 합니다.

Taking the Next Leap Forward as One

## SIMPAC Group

<p><b>SIMPAC 홀딩스</b></p> <p>SIMPAC그룹 지주회사 ·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 · 철강 가공 및 유통</p>	<p><b>SIMPAC 프레스BU</b></p> <p>국내 No.1 프레스 메이커 · 기계식, 유압식, 서보프레스 생산</p>	<p><b>SIMPAC 메탈BU</b></p> <p>국내 Top-tire 합금철 메이커 · 페로망간 및 실리콘망간 합금철 생산 · Roll 가공 및 제조</p>	<p><b>SIMPAC 인더스트리</b></p> <p>글로벌 기계 메이커들의 든든한 파트너 · 산업기계 및 감속기 생산</p>	<p><b>SIMPAC 주물</b></p> <p>국내 대표 주조 메이커 · 주조주물 생산</p>	<p><b>리스텍비즈</b></p> <p>세계 최고수준의 리사이클링 기업 · 고순도 산화이연 생산</p>
--	--	---	--	---	--